

제 4 교시

생활과 윤리

② 니부어

★ Reinhold Niebuhr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번에는 니부어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니부어칼럼은 워낙 어렵게 나온 적이 많아서 칼럼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어렵게 나올 부분이 이제는 충분하게 남아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킬러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니부어칼럼을 써보겠습니다.

다만 니부어에 대한 칼럼을 쓰면서 느꼈던 점은, 니부어의 원전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롤스나 노직의 원전은 그냥 읽기에 굉장히 곱고러워요. 논리를 해석하는 것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구요.

반면, 니부어의 원전은 수능 제시문에 그대로 가져놓아도 여러분이 쉽게 해석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교과 과정 내의 범위에 속하지만 충분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직접 추출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이 제시문들은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칼럼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부어의 개념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념의 흐름을 잘 배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외울 수 있게, '개념의 흐름'을 느끼세요! 그리고 니부어 문제가 나오면 이 개념의 흐름을 지도 퍼듯이 짚 펴세요. 그러면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일 것이고, 만약에 풀리지 않는 곱고러운 문제더라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배경

우선 여러분께서는 '사회 윤리'와 '개인 윤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윤리는 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개인 윤리는 개인중심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윤리는 '정의'를 추구한 반면, 개인 윤리는 '선(니부어의 말로는 이타심)'이라는 각각 다른 지향점을 추구했던 것이지요. 니부어는 개인의 윤리성을 향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사회의 문제는 사회 제도나 구조의 변혁이 없이는 해결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시문을 하나 보시도록 할게요.

☞ "모순과 갈등은 도덕 생활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 하나는 개인의 내면적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생활의 요구이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전혀 도덕적인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중국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개인과 사회의 궁극적 목표가 다르다고 보는 니부어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 제시문은 니부어가 왜 '도덕적인 개인'이 모였는데도 '비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주세요! (밑줄 부분이 너무 많긴 하지만, 다 중요하니까!)

☞ "모든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집단의 도덕이 이처럼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한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자연적 충동들에 버금갈 만한 합리적인 사회세력을 형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며, 이는 오직 개인들의 이기적인 충동으로 이루어진 집단이기주의의 표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는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욱 생생하게, 그리고 더욱 누적되어 표출되기 때문이다. 어떠한 형태이건 집단적인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그것에 대항할 세력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 힘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집단들 간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즉 그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와 필요성을 비교, 검토하여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 강제적인 요인들을 순수하게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요인들과 명확하게 분리하여 구분 짓거나 정의할 수 없다."

니부어는 도덕적인 사람들에 의해 사회가 구성되었다고 그 집단은 비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회 집단의 비도덕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니부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강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즉 니부어는 사회 부정의의 원인으로

사회 집단 도덕성이 각각의 개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

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집단 속에서 이기적인 인간의 성향, 그리고 힘의 불균등한 분배가 문제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집단의 권력적인 대립은 인간의 이성이나 이타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니부어의 입장입니다. 사회 집단은 힘의 논리에 의거하여 움직입니다.

힘에 의해서만 사회가 움직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그들의 영향력을 더욱 부정적으로 넓힐 것이고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요. 또, 거대한 사회 집단이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에 따라 개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니부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정당한 강제력을 사용하여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부정의가 팽배해있는 사회 상황에서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인 노력을 기울여봤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는 정말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니부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니부어와 상당한 대립각을 보였던 입장을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에도 등장한 입장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이 칼럼에 서술되어 있는 정도는 꼭 아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부어는 사회문

제를 해결함에 있어 정부의 강제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문제해결에 대한 신 및 부분에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반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인간의 이성과 선의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던 입장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주의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사회적 문제가 “집단들 간의 상호 이성적인 합의”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적인 폭력성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강제성은 비합리적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회 스스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하여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도덕주의자의 의견에 대해 니부어가 반박하는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완전히 합리적인 객관성이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인간의 이성은 항상 어느 정도는 사회적 상황 내에서 이해관계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회 불의는 교육가와 사회과학자들(맥락상 도덕주의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바와 같이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권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는 힘에 대해 힘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 도덕적 선의지를 희생시킬 만큼 무책임한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 사이에서 도덕적 선의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힘은 강제적 방법에 의해 파괴되어야 하는데, 이 방법들은 항상 그것이 파괴한 불의의 자리에 새로운 형태의 불의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사회적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한 통제 아래두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견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정직함과 자제심에 부분적으로나마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이 논쟁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종교적이건 세속적이건 도덕주의자들을 향한 것이다. 그들은 개인의 이기심이 합리성의 발전이나 종교적 선의지의 성장에 의해 점진적으로 견제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야만 모든 인간 사회와 집단은 사회적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들에 바탕을 둔 도덕가들의 사회 분석과 예측은 결국 우리 시대에 매우 심각한 도덕적, 정치적 혼란을 가져왔다. 이들은 인간의 집단적 행동 중에서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이나 양심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오게 할 수 없는 요소들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정의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에는 정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완전히 간과하였다. 또한 그들은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그것에 대항할 세력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그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양심과 이성이 그 투쟁에 끼어든다 하더라도 집단적 힘을 부분적으로 억제하는 할지언정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못한다.”

☞ 도덕주의자들 말대로 선의지대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니부어의 견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집단 권력의 싸움에서는 힘의 차이에 의해서만 강약이 구분된다는 니부어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니부어는 개인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정의’가 광범히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니부어는 개인적 양심의 도덕적 통찰과 성취와 사회적인 강제력 모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 문제의 해결에 요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도덕적인 문제는 정부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 해결될 수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동시에 사회 제도를 개선하여야 도덕적인 사회가 건설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강제적인 힘이 독단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니부어는 정부의 공권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정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선의지에 입각하여 강제성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공권력이 정의를 상실하고 선의지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시민혁명과 같은 폭력 또한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을 통해 니부어는 나름대로의 궁극적 지향점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니부어는 현실적으로는 사회적인 강제력을 발휘하여 정의를 달성해낼 수 있지만 궁극적인 상황으로는 이러한 강제력의 최소화를 통해, 그리고 개인의 양심 함양을 통해 합의로 이루어지는 문제의 해결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조화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지만,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항상 모순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이고 강제적인 해결방법은 개인의 도덕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합리성을 무한적으로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합리성만으로는 집단 간의 갈등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자동적으로 합리성을 산출하거나 사회 정의를 가져오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인간의 오로지 이성에 의거하여 사실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니부어가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지향점을 제시문으로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니부어의 지향점

① 오늘날의 사회 문제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보다 적절한 도덕 교육과 사회 교육, 그리고 인간 지성의 개발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교육은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한 개인이 타인의 요구에 공감할 수 있고 조화롭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간의 정신에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이 있다는 믿음은 개인적 관계들에서는 그 잠재력을 개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니부어가 사회 문제에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네요. 아마 이 글은 처음 보시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내용 정도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칼럼에 포함시켰습니다. 니부어는 ‘도덕 교육(사회 교육)’, 그리고 ‘인간 지성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네요. 그렇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교육’과 ‘지성의 개발’은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 할까요? 니부어의 제시문으로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개개의 인간은 자신들의 이해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해 관계도 고려하며, 또한 때에 따라서는 행위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더욱 존중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이다. 그들은 본성상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심을 갖고 있다. 이 경우 동류 의식을 느끼는 범위는 사회 교육에 의해 얼마든지 확장된다. 그들은 이성적 능력을 통해 정의감을 키워간다. 이 정의감은 교육적 훈련에 의해 연마되고, 그 결과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공정한 객관성의 척도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이기주의적인 요소들을 정화시킨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들은 인간 사회와 사회 집단에서는 개인들에 비해 훨씬 획득되기 어렵다.”

☞ 니부어의 인간관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글입니다. 니부어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동시에 이타적이며, 교육을 통하여 이타적인 부분을 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이성(지성)과 이해심이 모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이것만으로 해결되는건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다음 제시문은 이러한 니부어의 관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지향점을 설명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기에 대한 인간 집단의 근본 관심은 강제가 없이 완전한 평화와 정의로 충만된 이상적 사회의 건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의는 있되 그의 공동 작업이 전적으로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강제력이 충분히 비폭력적인 그러한 사회의 건설에 있다.”

☞ 이상적인 조건으로 무엇을 들고 있나요? 강제력이 없는 사회인가요? 아니죠! 강제력이 '최소화'된 사회의 건설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 니부어가 본 인간의 본성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니부어 칼럼을 쓰면서 만들어 보게 된 부분입니다. 니부어가 본 인간의 본성이 꽤나 양면적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 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 짧게 요약해 하자면, 니부어는 인간이 이기심과 이타성이 모두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성도 존재하지만, 이는 사회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하지만 사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도 보았습니다(이러한 이성 능력을 '교육'으로 개선한다면 말입니다.). 니부어가 생각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제시문들을 보실게요.

㉔ 사회적 갈등과 불의의 궁극적 원인은 인간의 무지와 이기심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과 자애심을 증대시켜 정의를 세우려는 바람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 우선 니부어는 사회 갈등의 궁극적 원인이 인간의 이기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봤죠?~ 기출에 그대로 출제되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평가원은 원전의 내용을 토대로 수능 선지에 활용함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㉕ 인간은 본성상 이기적 충동과 이타적 충동을 함께 갖고 태어난다.... 개인의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독자적인 존재를 유지한다. 자연에 있는 모든 유형의 에너지는 자기 보존과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인간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긴 하지만, 이성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인간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과 갈등 없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이 도덕의 유일한 기초는 아니다. 이성은 이기심 이외에 이타심도 수용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확대시키고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한 능력을 새롭게 창조해낼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욕구를 생생하게 이해하는 정도, 우리가 자신의 동기와 충동의 성격을 의식하는 범위, 우리 자신의 생활과 사회 속에서 서로 갈등하는 충동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합리성의 정도이다. 이들 각 경우에서 이성의 발전은 도덕적 능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이해 관계를 잘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이해 관계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은 결코 동정심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관계들의 조화는 자애심에 의존하는 만큼, 혹은 더욱 많이 정의감에 의존한다. 이러한 정의감은 지성의 산물이지만 감성의 산물은 아니다.

니부어는 자애심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성의 역할도 굉장히 인간의 인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음을 알 수 있는데요.

§ 노동자들에 대한 니부어의 견해

한편, 니부어는 노동자들 또한 정치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 이게 무슨 똥단지같은 소리냐구요? 당연한 소리예요! ㅎㅎ. 니부어는 정치권력이 어떤 요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했나요? '힘'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보았죠! 그래서 니부어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에게도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시문 보시죠!

“노동자들의 힘(주로 파업이라는 무기)은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에는 그리 적합치 않다. 왜냐하면 갖가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힘은 지배 계급의 영향력 아래에서 파업의 힘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가에 의해 약화된다.... 이러한 정치 권력의 강압적인 탄압이 없더라도 노동자들의 파업이라는 경제적 무기는 그리 강하지가 않다. 게다가 그것은 점점 약화되어 간다. ... 결국 노동 계급은 굶주림에 굴복하게 되며, 산업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힘만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바위에 계란 치기나 같다. 이제 이런 약점을 보완하려면 노동 계급은 필연적으로 정치권력도 소유해야 한다.”

이상 니부어에 대한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칼럼의 순서대로 개념을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yhkentlee로 카카오톡해주세요!